

함께 드리는 대림절 기도문 8

- 하나님의 교회, 세계의 교회 -

2020년 2월 7일

교회는 자신의 공간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 투쟁할 때에만 자신의 공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만 투쟁하는 '종교단체'가 될 뿐, 하나님의 교회, 세계의 교회가 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어떤 종교단체를 만들거나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을 무장시키십니다. (『윤리학』, “그리스도, 현실, 선-그리스도 교회, 세상” 中)

요한계시록은 그 막바지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일찍이 예언자들이 그토록 꿈꾸며 기다리던 희망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을 지목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것이 없을까요?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왜 그것이 없어야 할까요? 우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계 21:1)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짐승이 올라오는 장소입니다. 그 짐승은 사탄에게 받은 권세로 폭력을 행사하는 잔혹한 짐승입니다.(계 13장) 역사적으로는 로마가 바다로부터 쳐들어왔지요. 이렇게 사탄의 권세가 올라온 그 폭력의 근거지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되는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면서 요한은 거기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신다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언자들이 그토록 꿈꾸던 새 예루살렘의 확고한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거기서 성전을 볼 수 없었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 바다가 정치적 폭력의 근거지였기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자리가 없다면, 저 성전은 종교적 폭력의 온상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도무지 그 자리가 없다는 뜻이 아닐까요? 지금 너희의 성전이 하나님을 훼방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는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폭력의 소굴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라는 뜻 아닐까요? 너희가 재건하려고 꿈꾸는 그 성전을 무너뜨린 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 아닐까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파괴되었고, 헤롯의 성전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장사꾼의 집,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셨지요.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는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들만의 아성이 되어버린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교회가 한낱 종교단체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¹⁾

1) 책 : 본회퍼와 함께 기다리는 성탄 (대림절묵상집) / 출판사 : 대한기독교서회 / 출간일 : 2017.11.5. / 36~37쪽